

전남 수출 효자상품 유자·전복

中·일에 작년 6,200만달러 수출 한류·시장다변화 영향 최고 6배 증가

유자와 전복이 전남지역 농·수산업체들의 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전남지역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이들 품목은 한류와 시장다변화 등에 힘입어 지난 1년 새 수출액이 최고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5일 전남도가 발표한 '2006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고흥지역 특산물인 유자 수출액은 총 4천57만2천달러로, 지난 2005년 한 해동안 수출액 1천117만5천달러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46%가 중국·홍콩에서 소비됐으며,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도 38.2%를 차지했다.

완도와 나주, 곡성 등지에서 생산된 전복은 지난 2005년 수출액이 322만3천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무려 5.6배가 늘어난 2천141만3천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물량의 99.9%가 일본에서 소비됐다. 전남도는 유자의 경우 고품질 건강 음료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중국과 일본으로 다변화했다는 점을 수출이 급증한 이유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복은 세계 일류상품 지경에 오른 대외적 가치 상승 및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정책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17억8천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가 감소했다. 엔화하락과 기계부품류의 수출부진으로 공산품 수출액(15억7천100만 달러)이 2.8% 줄어든 반면 농산품 수출액은 1억 달러로 12.4% 그리고 수산물 수출액은 1억1천200만 달러로 6.7%가 각각 증가했다.

최서남단 일본명 가거도 암초 80년만에 한국명 '가거초'로

국토의 최 서남단인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의 한 암초가 80년 만에 국적을 찾았다.

가거도 서쪽 48km 해상에 있는 이 암초는 일본군에 발견돼 지금껏 '일향초(日向礁)'라는 일본명으로 불리웠으나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최근 국적을 되찾았다.

이 암초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27년 3월 29일, 한국 연안을 순항하던 일본군함 '日向(일향)'이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일본군은 같은 해 8월 14일 수척의 트롤러선을 동원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암초명을 군함의 이름을 따 '일향초'로 정해 버렸다.

해양조사원도 1991년 9월 흑산도 서부 수로측량시 이 암초를 확인했지만 이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가거도 주민들이 일제가 붙인 이 암초와 '소흑산도' 이름 변경을 강력히 원하면서 암초 이름이 '가거초(Gageo Reef)'로 변경된 것.

/신안=조완필기자 wncho@

정몽구회장 징역 3년 선고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무죄



회사돈 90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비자금 696억원을 횡령하는 등 9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여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합계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경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차 양재동 사옥 증축과 관련, 건축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3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특가법상 뇌물)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북·제주지역 관할 駐光州中영사사무소 상반기 개설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을 관할권으로 하는 주(駐) 광주 중국 영사사무소가 올 상반기에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何穎) 수석영사와 광주영사관공실 쑤리민(孫利民) 영사 등 3명이 '한·중수교 15주년' 및 '한·중교류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남구청을 방문, 주 광주 중국영사사무소 개설 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황일봉 남구청장 등과의 합동에서 "이르면 5

월께 광주에 광주영사관공실(사무소)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사무소에선 광주·전남·북, 제주권의 비자발급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이를 위해 내달 15일 이후 광주에 총영사관 준비사무소를 열고 영사관 리모델링 등 본격적인 개소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2002년부터 중국 영사관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2005년 5월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영사사무소 설립을 승인받았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 개발 형태 서울 코엑스몰이 답이다”

문화전당 주변 개발용역 자문協 제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정지 주변 금남로 지하상가 일대를 서울의 코엑스몰과 같은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정 컨소시엄은 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홍보관에서 열린 '문화전당 주변 민자유치 사업 개발 용역을 위한 1차 자문협의회'에서 용역의 기본 과제로 우선사업 대상지 개발구상, 후속사업 개발방향과 함께 지하상가 활용방안을 꼽았다.

컨소시엄은 "지하가 갖는 환경적 특성을 감안, 문화회의, 전시, 실내테마, 조형, 영상, 음악, 음향 등 관련 시설과 4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복합 상업오락 문화시설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24시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자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코엑스몰의 사례를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또 민자유치 후보지 선정 평가요소로 집적밀도, 문화전당과 연계성, 접근성, 경제성, 무등산 조망권 등을 제시한 뒤 최최후보지로 ▲동부경찰서와 옛 체신청 부지 중심상업지구 8천600평 ▲금동 도심개발지구 일부 1만1천400평 ▲서남 중심상업지구 7천600평 등을 최최 후보지로 제시했다.

충정회계법인, ㈜디아파트너스, ㈜새우리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착수보고회 겸 1차 자문협의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국제무등산투자박람회(MIPIM)에 참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말 최종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폐목재 활용 '21세기형 장작불' 추진

목재연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성화하는 '21세기형 장작불'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림에서 자연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생활·산업부문에 나오는 폐목재를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쓰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21세기형 장작불' 구

상의 뼈대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란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뜻한다.

빛日만평

- 김중두

안중에 없는 사람들

공공화원증

No. J01500775
광주C.C

임종현
상기 화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분 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엘비스(광주)광산구	416호	418호	421호
지소제(분양증)	422호	423호	424호
	425호	426호	427호
	432호	433호	434호
	515호	516호	517호
	519호	522호	523호, 801호

이노스텔(광주)광산구
소계(분양증) 689-5면적

총 24개호

공인: 중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문수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교정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공채: 4월 14일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특채: 3월-5월

중개사 전문강의 17년!!

공인중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 공법·관할
- 민법·유형
- 부동산학·법률·실무·검정
- 공법·관할
- 공법·유형
- 부동산학·법률·실무·검정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육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전국수석 배출
본원출신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2월 1일
첫진도 개강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동아인재대학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Item	건 명	최종입찰 마감 일시	입찰서류 수령 일시	입찰서류 및 착수
1	역간 복귀의 교통	2007. 2. 16. 15:00	2007. 2. 16. 13:00	2007. 2. 16. 15:00
2	PCR System의 교체	2007. 2. 16. 15:00	2007. 2. 16. 13:00	2007. 2. 16. 15:00
3	입찰보증금	2007. 2. 16. 15:00	2007. 2. 16. 13:00	2007. 2. 16. 15:00

2. 입찰의 방법

3. 낙찰의 방법

4. 계약의 방법

5. 계약의 방법

6. 계약의 방법

7. 계약의 방법

8. 계약의 방법

2007년 2월 6일
동아인재대학 산학협력담당장

유해조수 구제, 멧돼지 잡는 공기총 출현

최신형 신제품 최고 위력(공기장량탱크 500cc)을
갖춘 공기총을 국내 최초 시판합니다

연중 개인소지 및 자유보관 가능
호신용 장비 연중 전시 판매

최형 각종 총포로 쾌적하게 정밀하게 실시하여 소자적 일부형

계림총포무역

1062)522-0077, 529-798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3-20(구서안동)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을 방사하므로 쪼들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로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방열 시 발생하는 열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오염이 없습니다.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나노입자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신수동 TEL.(062)262-0101